

주요 내용

■ 인프라 펀드 설립의 의미와 과제 ■

□ 설립 배경

- (새로운 투자 방식 필요) 민자 유치 금액이 정부 고시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인프라에 대한 투자 자금의 확대와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새로운 투자 방식이 필요

□ 주요 내용

- 국내외 인프라 펀드를 5,000억 원 규모로 설립해 국내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프라 사업에 투자
- (지원 조치) 인프라 펀드 주식의 상장(등록) 의무 면제, 금융 기관의 인프라 펀드에 대한 출자 한도 규제 완화 조치를 취해 인프라 펀드 설립을 지원

□ 의미

- (투자의 국제화) 민자 유치 기업의 개별 자금 조달 방식에서 전담 투·융자 회사 방식으로 전환
- (간접 투자 계기) 다양한 투자 자금이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유입되고 장기적으로는 소액, 개별 투자도 가능해질 것임

□ 향후 과제

- (규제 완화) 보험, 연기금 등 장기 기관 투자 자금이 인프라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자금 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수익성 제고) 인프라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인프라 투자 사업의 수익성을 국제적 수준인 18~20% 정도로 제고해야 할 것임

인프라 펀드 설립의 의미와 과제

김 선 덕

인프라 펀드¹⁾ 설립 배경

- (민자 유치 부진) 그동안 인프라에 대한 민간 자본 유치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
 - 95년 이후 정부가 고시한 총 51개 사업(총사업비 43조 5,801억 원)중 착공된 사업은 7개 사업(4조 7,112억 원)에 불과함
 - 정부 고시 사업중 금액 기준으로 착공 사업은 10.8% 정도에 불과함
- (새로운 투자 방식 필요) 인프라 투자 자금의 확대를 위해 새로운 투자 방식이 필요
 - 우리나라에서 1998-2002년까지 총 80조 원²⁾ 정도의 SOC 투자가 필요하나, 정부의 재정 투자는 51조 원 정도에 머물 것으로 보여 총 29조 원, 연간으로 대략 6조 원 정도가 부족함
 - 인프라 투자에 국제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인프라 펀드 방식으로 민간 자금을 유도할 필요성이 대두됨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국내·외 인프라 펀드를 5,000억 원 규모로 설립해 국내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프라 사업에 투자
 - 국내 펀드는 3,0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5개 금융 기관³⁾에서 2,200억 원 정도 출자되었음

1) 사회간접자본 건설 사업에 대한 출자와 용자, 채권 매입 등을 담당하는 투융자회사로 투자자들 주주로 참여하는 뮤추얼펀드의 일종임

2)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

3) 산업은행(1,000억 원), 한빛은행(300억 원), 삼성생명(300억 원), 교보생명(300억 원), 동양 증권(300억 원)

- 역외 펀드는 2억 달러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제 인프라 투자 회사 등으로 부터 1억 달러 정도를 유치함

< 인프라 펀드 조성 개요 >

	국내 펀드	역외 펀드
· 조성 목표 · 모집 대상 · 투자 대상 지역 · 펀드의 법적 성격	· 3000억 원 · 국내 출자자 · 국내 ·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 투융자회사 · 증권투자회사법상의 증권 투자 회사	· 2억 달러 · 해외투자자 · 아시아 태평양 지역 · 설립 지역의 법률에 의한 주식회사

- 인프라 펀드를 운용할 투융자 회사를 설립하고, 인프라 건설에 참여하는 업체에 출자하거나 대출, 채권 매입 등을 통하여 투융자 사업을 벌임⁴⁾
- 이와 함께 인프라 사업 시행자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설치, 운영함
- (설립 지원 조치) 인프라 펀드 주식의 상장(등록) 의무 면제, 금융 기관의 인프라 펀드에 대한 출자 한도 규제 완화 조치를 취할 예정임
 - 인프라 투자 수익은 장기간에 걸쳐서 실현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투자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돼 공모 방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또 투자 금융 기관이 인프라 펀드에 출자할 수 있도록 인프라 펀드가 발행한 비상장 주식 취득 승인, 동일회사 주식 취득 한도 예외 인정 등을 허용

의미

- (투자의 국제화) 민자 유치 기업의 개별 자금 조달 방식에서 전담 투·융자 회사 방식으로 전환

4) 회사의 존속 기간은 10년이고 매년 배당금이나 투자 이익금 형태로 주주들에게 수익을 되돌려 계획임

-
- 인프라 투자에 다양한 투자 자금이 도입되고, 참여 건설업체, 출자 회사, 보증 기관 등으로 투자 리스크가 분산
 - 인프라 펀드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면 인프라 투자 사업의 기획, 타당성 분석, 건설, 운영 등이 국제적인 수준까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간접 투자 계기) 다양한 투자 자금이 인프라 투자에 유입되고 장기적으로는 소액, 개별 투자도 가능해질 것임
- 아직은 은행, 보험 등 금융 기관이 주요 출자자이나 장기적으로는 연기금 등 장기 투자 자금이 유입될 것임
 - 이러한 장기 투자 자금의 유입과 함께 소액의 투자자들도 인프라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소액 투자 방식까지 개발될 수 있을 것임

향후 과제

- (규제 완화 필요) 보험, 연기금 등 장기 기관 투자 자금이 인프라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자금 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인프라 투자 수익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 자금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외국의 경우에는 90년대에 들어 인프라 투자에 私的 연금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음
- (수익성 제고 기반 확충 필요) 인프라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인프라 투자 사업의 수익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임
 -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수익률은 13-17% 정도이나 국제적으로 인프라 투자 수익률은 18-20%에 달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수익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부터 민자 유치 사업 대상으로 해야 하고,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정부의 SOC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간접투자 사업의 재조정이 필요할 것임

(sdkim@hri.co.kr ☎724-4036)